

광산구청 주변 낮기온 37.2도 가장 높아

국제기후센터 광주 78곳 측정 ... 일곡동 한국아파트 최저 밤기온 송정역 입구 최고, 시민의 숲 녹지공간 가장 낮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 여름 광주지역 78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온도 측정 결과 '광산구청 부근'의 낮 기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국제기후센터는 20일 "광주 온도 1℃ 낮추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주의 폭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내 78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열환경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기온 측정결과 주간에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은 '광산구청 부근'으로 37.2도였고, '일곡동 한국아파트'가 32.0도로 기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야간에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은 '송정역 입구'로 32.7도였으며, '광주 시민의 숲 녹지공간'은 25.9도로 낮았다.

주야간의 기온차가 가장 높은 지점은 '용산차량기지 부근 수변 공간 부근'이 9.5도로 나타났으며, 기온차가 가장 낮은 지점은 '송정역 입구'로 3.2도를 나타냈다.

습도측정 결과 주간에 습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우치공원 내 녹지공간'이 57.6%였고, 야간은 '용산차량기지 부근 수변 공간 부근'이 85.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불쾌지수는 상대습도 75~80%부터 발생한다.

주야간의 습도차는 '용산차량기지 부근 수변 공간 부근'이 41.9%로 습도변화가 컸으며, '동명동주민센터 부근 주택가'가 8.4%로 습도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점의 주간 두 차례 측정 평균기온은 각각 34.5도, 34.8도로 같은 시간 광주지방기상청이 관리하는 5개의 AWS(자동기상관측장비)의 평균기온(각각 33.1도, 33.3도)보다 각각 1.4도, 1.5도 더 높게 나타났다.

센터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주시 열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광주시의 지역적 특성 및 공간구조에 따른 열섬특성, 요인 분석, 그리고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와 열섬지도도 11월경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 책임자인 오병철 박사는 "앞으로

도시의 열환경을 측정하여 기초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 및 제공할 것"이라며 "이에 기반을 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폭염 및 도시열섬 대책 등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면 광주시가 폭염 및 열섬 대응의 선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사의 측정지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로(교차로), 공원 및 녹지, 수변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각각의 지점에서 기온과 습도를 동시에 측정했다. 조사는 지난 8월 10일~11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됐고, 측정기준은 기상청의 기상관측규정을 참고해 지면에서부터 1.5m 높이에서 이뤄졌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 환영행사'에 참석해 대회기를 흔들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기 인수 환영대회

광주시는 지난 19일 5·18 민주광장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를 알리는 '2019년 광주대회의 성공 개최 기원' 범시민 환영행사를 했다.

행사에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이인 윤장현 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조영택 조지위 사무총장, 장우국 광주시교육감,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스포츠 평화 도시 광주' 비전 선언문이 발표됐다.

시는 비전 선언문을 통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 개최한 광주가 공동체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150만 시민의 열정과 정성을 한데 모아 세계 스포츠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또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가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 문화와 사람 등 모든 역량

을 한데 모아 2019 대회를 반드시 성공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넘어 전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생활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대회 유산을 통해 광주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국제스포츠 도시, 국제평화도시 광주'로 도약하는데 정성을 다 한다 등 4개 항을 선언했다.

윤장현 시장은 "다뉴브강에서 영산강으로, 부다페스트에서 광주로 FINA대회가 옮겨왔음을 시민께 보고 드린다"면서 "광주를 민주 도시에서 평화도시, 4차산업혁명의 첨단도시로 세계에 알리고, 2002년 월드컵, 2015 하계U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저비용 고효율 명품대회로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자리매김하는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오광록기자 kroh@

인구 190만명 붐피 전남도 '인구정책팀' 신설

전남도는 인구감소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는 인구 문제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팀을 정책기획관실에 신설해 이달부터 가동중이다. 인구정책팀은 앞으로 계층·연령·기관별 대표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 시·군과 협력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2013년 6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어 2014년 8월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지난 3월 말 기준 인구 190만 선이 붐피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각각 발표한 인구 전망을 보면 30년 후 전국 84개 소멸위험 지역에 전남 시 지역을 제외한 17개 군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생애주기별 인구 문제 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해 중장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대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자문·심의기구인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특정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도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언주 국민의당 대표 경선 후보 인터뷰

“호남-비호남 등 분열 심해 당 통합하고 새판짜기 할 것”

국민에게 책임있는 정치인으로 각인되기보다,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이언주(사진) 후보는 왜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을까. 지난 19일 광주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그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당은 잊힌다. 흘러간 정치인도 안 된다. 당 분열을 치유할 책임자도 바로 나”라며 당권 도전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당권 도전에 나선 이유는.
▲호남과 비호남, 안철수계와 비안철수계간 당내 분열이 극심하다. 자칫 전대 후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 당내 몇몇 의원들의 출마 권유도 있었고 당을 통합하고 새판을 짜보겠다는 각오로 나섰다.
-안철수 사당화 논란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집권)이 유도 민주당에 좋은 후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여러 스펙트럼을 가진 후보가 다양하게 활동해서 정당 외연이 확대된 것이 큰 도움 아니었다. 안철수만 보고 가선 안 된다. 국민 협력을 받아쓰는 공당을 사조지처럼 운영하는 것은 커다란 범죄다. 정당의 힘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안철수 사당화 논란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것부터 안 후보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바른정당과 통합 내지 연대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갖고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바른정당과 단일 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연말쯤 정책연대로 걸지 등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안보관의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양 당이 별 차이가 없다.
-이언주가 생각하는 정치는, 현재 정치권의 문제는.
▲정적이지 않다. 표가 중요하겠지만 거짓 희망을 주선 안 된다. 무슨 말을 할 때도 명확하게, 근거도 분명하게 제시해 한다. 낮은 자세로 임하되 현실을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 욕먹을 땐 먹고, 표 잃을 땐 잃더라도 솔직하게 인정 밝히고 국민께 평가받아야 한다. 그게 국익에 부합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3차례 사장 공모 무산 광주도시공사 상임이사 2명 모집

경영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
광주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등 상임이사 2명을 공개모집한다. 도시공사사장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되면서 경영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돼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경영본부장 1명과 사업본부장 1명을 각각 임용하는 공고를 냈다. 임용기간은 3년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체육시설 관리 등 공사 업무관련 기관에서 관련 업무

경력에 갖춘 자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을 갖춘 자 ▲공기업 경영 등 공사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자 등이다.

1차 서류심사는 오는 9월 8일, 2차 면접심사는 9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인사추천위는 임용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면 윤장현 광주시장이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2월, 3월, 7월 등 3차례의 공모가 무산되면서 8개월째 공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6차산업 인증농가
고흥군 해맑음팜 오영호 농부

beyond farm
농부가 만듭니다

전남 농업 꽃피다

6차산업이 꽃피다

AGRICULTURE BLOSSOM

1차

농산물 생산
특산물 생산
기타유무형자원

2차

식품 제조 가공
특산물 제조 가공
공산품 제조 등

3차

유통 판매
체험 관광 축제
외식 숙박 컨벤션
치유 교육 등

정직한 전남의 농부가 만든 6차산업 우수제품을 만나보세요

광주 |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매장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 롯데백화점광주점 지하1층 식품코너

전남 | LFS퀘어테라스물 광양점 로컬푸드 직매장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706-2 1층 로컬푸드마켓 내

전라남도 ·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